

북한 기도회

2024년 1월



1.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8형은 고체연료 미사일로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사거리상 미국 본토 타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반발했지만, 유엔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전후하여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각종 방역 통제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을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해왔습니다. 강화된 단속과 과도한 처벌, 그리고 공개처형 등 공포정치 속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는 침해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향을 돌이켜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 박해 소식이 선교현장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29조(성목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목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목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목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목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유통,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 활동 관련 처벌 규정>



4.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1천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수감중인 것으로 보고 강제송환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송 당했을 시 경험하는 고문을 동반한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탈북자들은, 이들의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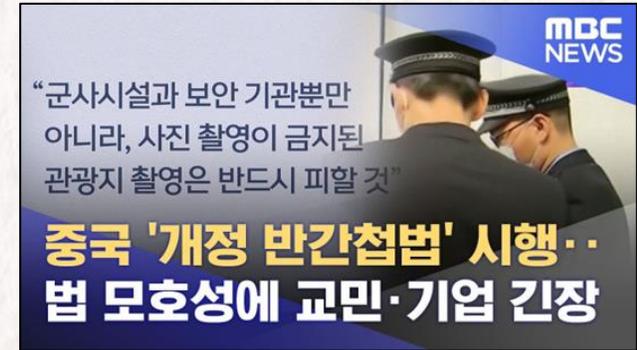


5. 해외 북한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북한의 국경통제가 완화되고 관광 및 인적 왕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이나 북러 관계 밀착으로 인한 러시아 내 탈북자에 대한 처우 악화 등으로 선교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이 안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의 사명은 단지 한국 교회만이 아닌 세계 교회의 사명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현지교회,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을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북한은 에너지나 난방 사정, 그리고 주거환경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합니다. 또한 빈부 격차에 따른 에너지 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반도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북한 서민들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로 인적 왕래가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